

‘최고위원 도전’ 민주 이성윤 의원, 전북 찾아 당원 지지 호소

“검찰개혁 완수·전북 발전 전인”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위원에 당선돼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고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제대로 전달하겠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출마배경에 대해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이 30년 동안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라며 “전북을 지역구로 둔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 반드시 있어야 전북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도별 권력당원 투표에서 전북도민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최고위원 선거 판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후보별 진영 구도가 형성된 측면이 있지만 끝까지 당원들에게 진정성을 호소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권력당원 비중이 큰 호남과 수도권에서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난 6개월간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성과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추진과 전북 발전 기반 마련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수청법과 관련 법안을 추진했고,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냈다”며 “전북에서는 ‘서해안 글로벌시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임에 도전하는 이성윤 의원이 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형소법 개정 이후에도 검찰개혁 작업 계속돼야
조직·인력 재편 마무리
정부 메가프로젝트서
전북의 강점 키워야
KTX 전라선 운행 확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
부족한 인프라 개선”

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보다 중앙 정치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국가적 현안으로 밀려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전북의 지역 현안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성과를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이라는 위치에서 정부와 당 지도부에 전북의 요구를 전달할 때 일반 국회의원과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개혁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정리하고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해야 비로소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을 책임지고 끝까지 추진할 최고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핵심 현안으로는 현대차 대규모 투자와 새만금 개발, 메가프로젝트 대응을 꼽았다. 이 의원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의 강점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새만금을 피지컬 시와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 현안으로는 호남권 철도망 확충과 KTX 운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KTX 전라선 운행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철도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도한 네거티브는 민주당 전체를 위협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는 하나 된 민주당으로 다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 의원은 “조지훈 전주시장에 인구 감소 대응, 재정건전성 회복, 피지컬 AI 산업 육성, 한식과 문화산업 발전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며 “특히 전주시의 높은 체무 문제를 해결하고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 등 미래산업을 적극 추진해 전주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말미에서 이 의원은 “용산역에 내릴 때는 172만 전북도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강하게 전북의 목소리를 내고, 전주역에 내릴 때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겸손한 정치인이 되겠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정읍지역 폭염 대응 현장을 찾아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도민 안전 최우선

이원택 도지사, 정읍 폭염 대응 현장 찾아 안전관리 실태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내 첫 폭염 중대경보가 전주시에 발효됨에 따라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이원택 도지사가 정읍지역 폭염 대응 현장을 찾아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과 영농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장과 도의원 등이 함께한 이번 점검은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폭염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과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먼저 박동경도당을 찾아 냉방시설과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을 살피고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무더위가 심해지는 만큼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에서 더위를 참지 말고 낮 시간에는 무더위쉼터를 찾아 시원하게 쉬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논밭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

시며 충분히 쉬어야 한다”며 “홀로 계신 어르신과 이웃의 안부도 서로 살펴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읍명품과리사당마을 방문해 영농사업장의 폭염 대응 실태와 근로자 안전관리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원택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분들의 안전”이라며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낮 시간대 작업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응급조치가 이뤄지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시·군 및 관계부서와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보호, 농업·축산 피해 예방 산업현장 안전관리, 폭염저감시설 점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시·군과 협력해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 찾은 김 전 총리, 곳곳 당심 공략

3일 이어 어제도 남원·김제 등 방문 잇따라
민주 당대표 도전... 전북 당원과 접점 확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3일에 이어 4일에도 전북 구석구석을 찾아 도민과 당원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4일에는 남원과 정읍, 김제·부안, 익산을 잇달아 방문하며 전북당심 공략에 나섰다.

총리 시절 ‘새벽 총리’라는 별칭을 얻었던 김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에서 일정을 마친 직후 오전 9시쯤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직접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어 정읍 생고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전통시장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오후 3시에는 김제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김제·부안지역 당원 강연회에 참석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 운영 비전과 당대표 선거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민주당의 단합과 정권 성공을 위한 당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익산 에스언더파크에서 열린 ‘백문백답 2, 전 당원 100% 힘으로 승리’ 행사에서 참석, 당원들과 자유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4일 김제시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권력당원 강연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운 집의응답을 통해 당 혁신과 지방균형발전, 민생 회복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는 이후 오마이IV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당대표 선거 전략과 주요 공약을 설명했으며,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익산 영등동 먹자골목 찾아 시민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3일에 이어 4일까지 이틀간 이어진 김 후보의 전북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심 지지기반인 전북 당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민심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이었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전주대 슈퍼스타 홀에서 3천여 명의 당원과 도민들을 만나 민주당 당대표로서 민주당의

쇄신 방안과 전북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전북에서 전통시장 방문과 강연회 토크콘서트,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 도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만호 기자

‘탄소중립 실천·수소경제 활성화 앞장’

민주 박지원 의원, 의정활동 차량에 수소전기차 도입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의정활동 차량으로 수소전기차를 도입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니올 뉴 넥소(The all-new NEXO)’를 의정활동 차량으로 선택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청정수소 지원법을 제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발의한 데 이어, 직접 수소차를 이용하며 정책과 실천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지면서 수소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부족과 초기 수요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확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직접 수소차를 운행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충전 편의



성과 인프라 확충 필요성,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점검하고, 이를 향후 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도 지속해 왔다.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청정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유통·활용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만호 기자

도·전북앵커센터, 초광역 미래성장 모델 제시

‘수도권·3특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하계 포럼’ 주관기관 참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앵커센터(센터장 채수찬)가 수도권과 특별자치도 간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미래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앵커센터는 4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3특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하계 포럼’에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전북의 신화현 혁신역량을 알리고 초광역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앵커 내 5급 3특 초광역 협업 체

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간 협업 과제 발굴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된 전국 릴레이 포럼의 마지막 행사다.

혁신군의 시너지 균형 성장을 이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3특 및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 앵커사업 참여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당 한병도 의원(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의 교육 발전과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시도별 릴레이 협업계획 발표에서는 김원일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겸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장)가 전북 대표로 나서 동물용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거점급진대과 전문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전북이 단순한 협력 대상이 아닌 주도적인 초광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와 5급3특 시대 수도권 및 3특 산업 협력 전략을 주제로 남궁 문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지역 혁신과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마련한 ‘무문현답(우리의 문제는 지역 현장에서 답을 얻는다)’ 프로그램에는 전북지역 4개 대학인 국립군내대, 군산근로대, 군장대, 예수대가 참여했다.

참여 대학들은 앵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며 초광역 연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완주 동상면 119안전센터 설치 시급”

권요안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2,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실에서 열사병 환자 사망과 관련하여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을 질타하고, 완주군 동상면의 소방 대응체계 개선과 119안전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일 완주군 동상면에서 발생한 열사병 환자 이송 지연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권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상면에는 119안전센터가 없어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에 약 20분이 소요



되고 있다”며 “물론 팀을 놓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만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119안전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 “응급상황에서는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한다”며 “도민의 생명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 안 된다. 동상면 주민들도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